

상우에 을녀 늦는다. 「여보 호호잔만 먹어요 다시는 권하지 아니 할터이니 만일 더 말을 듯지 아니 하면 나도 몇히 동이를 두고서 마노라의 말을 들어 오던 일도 인제 는 아니 들을터이야 정말은 이 먹을터이요 그러면 나도 강제로 행동할 터이니 사」  
 하며 위협한다 순이는 술취한 사람의 위협을 당할가 두리워 술호잔을 죽기로 작정하고 보다 마시었다. 「호호잔 먹고 나는 호호잔이니 싸라 주오」 순이는 술이 입의 전신에 퍼져 그 숨은 을녀 거리고 머리는 묶어우며 얼골은 뜨거워 땀을 흘린다  
 쏘이고자 영창문압호로 그려는 다리 그 이리저리 헛되 더진다 「순이는 술호잔 을 보다 마시고 웃간 영창압해 은차잇스니 이는 순이 그 진실노 술이 취할야 그 리름이 아니라 괴로이 하는 김중비의 엽을 찌나고 차할야 술취함을 핑계함이라 그러나 전혀 술이 아니 취함도 아니 영창문을 열고 더운 얼골을 밧그로녀 밀 어 문지방에 이마를 대이고 진짓 술취한 모양을 짓는다 김중비난 순이가 엽해 잇지 아니 하고 피할야 감을 보고 오히려 분비 역이 난 모양으로 웃간을 향할야 한 참 바라보다니 「여보 이리 들어 오오 외그리로 나 그 은 젖셔 이 스펀도 자미 도 없다 얼골이 저만치 뚝뚝한데 쓸쓸도 할다 얼골과 성품은 조 쉰판이야」 호 며 호차 말 할 듯이 하고 있다 그러나 순이 난 잠든 스펀도 움작이지 아니 하고 그 마니 업터여 잇슴을 김중비난 더욱 갑갑이 녀여 몸을 벌떡 이리 스더니 싸린 듯이 달녀 들어 순이의 업터여 잇난 모양을 한참이나 내려다 보고 서서 있다

벽설 같은 그 목 뒤에 난 붉은 괴운이 을나 선인도 그 이슬에 젖진 것 같고 하품만한 억기와 밀 그 로로 비진 듯호 두손은 땀 업시 문지방에 걸치고 잇난디 다만 보 이 난 것은 금호습별이 차로 식스 할 제 마다 그 는 허리 난 늘었다 줄었다 할 썩이라 이와 호은 모양을 보고 서던 김중비난 처음은 적이 노호 괴운도 업지 아니 할 것스 나 처음에 노여운 마음은 찢듯 호 땀 땀에 눈스러 버리 듯 하고 도로혀 다정호 마 음이 일어느며 다시 그 스펀의 알음다 운 터도가 저로 워진다 김중비난 갖가 이 엽호로 나 그 은 지며 순이의 억기를 혼든다. 「여보 술이 취히소 술호잔을 먹 고 그리 호담 녀 엽해 은 젖기가 실호니 사 공연 호 핑계 이지 다시는 녀가 술을 권 할지 아니 할터이니 으리 시간으로 내려 갑시다 응」 순이 난 오히려 디 답이 없다 김중비난 순이의 몸을 혼드나 죽은 스펀과 처 조곰도 몸을 움작이지 아니 하고 대답이 업스미 진정으로 술이 그다지 취할 것나 가 의심 할야 한 손으로 순이의 속 으리고 잇난 고기를 들고 드러다 분다 순이 난 그 색야 비로소 눈을 뜨고 다시 눈 쓸을 찌 푸리고 두손으로 김중비의 억기에 북든 손을 썩리 치며. 「글세 외이 렷 케 썩쳐 다니면서 귀치은 케 구르시오 먹을 줄도 모르 난 술을 한잔이나 억지로 먹여 늦코 지금 속이 두근 거려서 못 견디 겠 난디」 「그리케 술은 다시 권하지 아니 할 것나 난디 그리 호 단 말이요」 「술은 먹으란 말은 이 할 여도 술 상압해 은 젖 잇 기도 실 하요」 김중비난 성난 모양을 지으며. 「웃져서 그리히 서 땀을 말히야



지「술너음서가 맛기실혀서 그럿치오」하며 치마고리를 휘짜가지고 자리를 조금피우여 온난다 김중비난 피가 막히난지 성난얼굴이 다시 우슴으로 변하여 허々우스면서。「모리 즉 지각이업기로 녀편네는 녀편네된 직분을알으야지 그럿케너엿히 잠시라도 실혀서 피하려고만하면 나가피히셔 어티로던지가리다」하며 분연이 옷옷을찌여입고 밧그로 나간다 그러나 순이난조금도 겁너지은이호고 그스름의 호난모양을 보고만 잇슬뿐이라。김중비가 밧그로 나간후 순이난 교교호호 달사빛을 향하여 마로삿헤 나옴녜스니 셔늘호브름에 약가셔지 더웁던 얼골은 셔늘호게 식었스며 가슴속으로난 전스와 장리스가 셔로 얼키여 싱구난다 순이난 달을우러러 원정이나 호난듯이 온젼스니 말은업고 드만 길게호숨져쉬며 짜르게 탄식호뿐이요 서시로 호방을두방울씩 떠러지난눈물은 차마를적시인드。순이난 임의 제물도 원치은코 영화로움도 반갑지은이호며 드만 뉘웃치난것은 전일 어린마음으로 부귀라호난싱구이가득호였슬써이요 브라난브난 소식이 돈절호 리수일의 은부뿐이라。이씨계집하인이 중문으로 좃츠 드름질호여 들어오며。「셔을마님 내려오셔요」호고 마로압호로 오난소리에 순이난 짹짹 정신이 낫드。「무엇이라고 그리히니는 무슨 큰야단이나 난줄알았구나 요란도부리지」。「이 마님은 그리도 못알아들으신게세 셔을 드방골 로마님이 오섯셔요」「무엇이야 마님이...」호며 말도드 곳치지니호여 오십여세된 부인호은와 그뒤으로난 심여세먹은게

집으호가 조고마호보짐을들고 마당으로 쫓츠들어온드 순이난 그모친이 나려움을보고 반가이 발브당으로 마당까지 좃치나려가셔 모친의손을붓들고。「이이고 어머니...」그모친은 순이를 김중비에게로 출가식인후로 큰성공이나호것갓치 알뿐이니라 스름의어버이된 직분을드호여 자식을상당호 가군으로보너여 출신케호얏스며 또호영화를 밧게호였드호여 스스로 자랑호기를마지은이호며 드만 순이의 몸이 티평호고 그집이 번창호여 날노 운수가통길(通吉)호기를 축슈호드。그러호으로 일년동은이면 그모친이 일이츠식은반드시 그들의 얼골을 보기위호야 그너외와 화호히 사난모양을 보고저 나려오며 순이도또호 그부모의얼골을 보고자호제마드 일업고 항상호 가호몸으로 셔을천정에 왕티호기를 임의로 호난터이라 이날그모친이 나려움을보고 순이난심히 반기엿더라 그러나 그마온티에난 드셔 반마이 기드리난 일이잇스니 그동은에 호시 리슈일의 소식을드고 던호여주고자 호이은인마호여 은근이 기드린드。그모친과 순이난 방으로드러와 좌명호후 보통호난 인스에말은 모드밧치고 등잔아리에 은조잇난 순이의얼골이 혈색이업셔지고 심히 슈척호모양을보고 녀너되난 부모에마음으로。「이이야 녀얼골을 마나보니셔 작년만도못호였구나 불제마드 얼골이 나마야 호터인티 점점못호야 마니 웬일이란말이



나」순이난 모친에 못난말에 비로소 자기의얼굴이 그것듯못하였는하여 은근이 놀녀엿드. 「그리도 난 어디알판데난 업는데오 너모 집은에만 혼자드러 온져잇스너서 그런요 요스이는 마음이 울적하고 심는할썩는 만요」 「그러면 혼자만 썩々거리고 잇지말고 너의 영감드려 말을하고 의원을 보요야지 그디로 두었다 마 큰병되기쉬울는 우석우석 알치는은이흐드 흥드리도 저러케 슈척하여 갈지경이면 속에는 무슴병이던지잇게 그러하지」 순이는 디답이 업는디 그모친은 드시 무산생각이 썩썩는듯이. 「올치 그러면 래기 마 잇는게 로구나 달구실은 거른일이업니」 순이는 우슴을보인다 그러나 우슴이 그말을 붓그리여웃는 우슴이안이라 그말이 하도우슈어서 비웃는 우슴이 현연이보힌다. 「아이고 어머니는 별소리를 다하시지 망척하여라」 「그리셔야 쓰겟니 큰 병신안인전에야 그닥지 소식이 업슬리가잇나 정말 잇니 업니」 「글세 잇기는 무엇이 잇셔요 쓸디업는말슴 작々히두오」 「너편네라는것은 저세났는것이 데 일큰적분인디 너는 업는것을 큰공이나 세운듯이 아는구나 지금은 아죽도 절문마음이라 네가 우슴게아나보다만은 몇히만 더지녀보아라 큰 후회할날이 잇슬터이니 다른스름々흐면 지금내뉘세에 말셔 형데는 두엇슬터이라 그런디 너는 당초에 소식도모연하니 그것으로보면 몸에무산병이 잇기에 그러할게지 병업는스름이야 그벌리치가 잇나나 병이잇스면 혼자하라도 절멋슬제 못쳐야

지너는 절름마음에 굿가짓것이라고 우슴게아지만은 비오기 너의시집에서도 너의시부모가 엿지리고잇기를 기다리는지 모른다더라 너의아버지도 일상그말슴이지 기이는 원일인지 스오년이되도록 리기가업스니 큰걱정이라고 저석을 낮치못하는것은 계집의슈치라고 디단이 녀녀를하시도라 전에 집에잇슬썩에는 동리집 어린호희들이라도 엿지귀야하는지 모로겟더니 제저석은나아서 귀야하고 심은생각이 업는게지」 순이는 얼굴에 붓그리는빛이 나타나며. 「어머니는 다름이약이는 안이하시고 그런말슴만하셔 아희를 날씩되면 어련이나 을나구요」 「그러기에 네몸을 도라보아서 몸에병이 업도록하야지 몸에병이잇고야 아희를 나을수가잇니」 「어머니는 무슨병이 잇는냐고 말슴을하시지만은 나는생각에 병은업셔요...」 그러치만 어머니 나는벌셔부터 어머니를 뵈오면 말삼하져 < > 하면셔도 인의말슴을 못히지요만은 정말나는 속으로 근심되는일이 잇셔셔요 날이갈수록 더히요 그러노라너서 저연이 마음이 편할날이 업셔셔 그생략으로 몸도저긋지못하고 얼굴도 병잇는스름 썩흔것이야요」 「그모친은 눈을동그러케쓰고 순이의압으로 무릅을치여말어 굿가이 나가안지며. 「응근심이잇셔 내가 근심이 무슨근심이나」 순이는 고기를숙이고 손으로는 치마선만가지고 꿇다접었다하며 그모친에 못난말을 디답하기에 심히 쥬져하다가 눈에 눈물이 흐를듯호일듯로 간신이 고기를들며. 「나는 작년가을에 리



슈일씨를 만나보았셔요」「응 슈일이를 맞나보았씨」하며 그모친은 크게 비밀  
 일이나 들은다시 티답도감안이 목소리를 나초아하며 그방안에는 하인들도  
 업고 다만 다리고나려온 어린계집아히만 혼구석에안져잇것만은 모친은 고기  
 를 휘셔들니여 외인들이들을가 겁니이는 모양이라。「어디셔 만나보았니」작년  
 에 서울을나와슬씨에 서강 박보국집에서 만나보았셔요 그후에는 집에서소  
 식을 모르시지요」「흐변 그러케 는간후에야 당초에 어디 소식이잇니」「조  
 곰도 소식이업셔요」「그러치」하며 모친은 혼편으로는 소식들을이반갑고 또  
 혼편으로는 순이와셔로 만났다함을 괴이하게 생각호엿더라。「거기셔 잇지  
 셔 맛났드란말이나 만는셔 너다려 지금어디셔 무엇을호고 잇단말이냐」하드  
 나」「말도못호여 보았셔요」하며 순이는 눈물을씻는다 그모친은 만감(萬感)  
 이 물네박회도듯호다 순이는 고기를 다시들고 그모친의얼굴을 바라보며。「그  
 런데 아버지도 슈일씨의 소식을 모로신티요 은근이는 아시것지만 당초에 말  
 숨을 안이호시는것이지요」「안이다 그러치안타알면 네아버지라도 집에서 말  
 심을호시것지 숨기실리가 잇는나만은 정말도모지 은지못호다 그런데너는 박  
 보국집에서 만는보았다니 엿더케 맛났드란말이나」순이는 그씩 만는던 일을  
 디강을말호엿더라 그모친은 듣기를다호고 슈일파와치 만날씨에 다행이 남의  
 눈에 띄이지안이함을 심히 호형히 녀어여 비로소 등에젖든 큰짐을 버셔노은

것과치 숨을돌났다라。「그러셔 리슈일이는 엿지호드란말이나」「셔로 모로는  
 체호고 지냈드렸지요 그러치만……」「그리고 엿지호엿셔」「그러케셔로 하여  
 족지요 그러치만 그후로는 는더욱 근심이되야셔 못견디겟셔요 그후에라도  
 그이가 잘된모양을 보앗스면 그리도 좀 낫겟셔요 그러치만 의표도 삼루호고  
 얼골도 물는보도록 슈척호엿셔요 는는차마 지셔이 보지도못호고 잠간눈결에  
 흐변보앗셔도 엿지가업는지 물는요 그런데 누구다려 조용이 무러보니셔  
 문밖사는 김정연이라고호는 집장수와 돈노이호는 스름의집 차인군으로 가서  
 잇디요 그러노라니 조연히 고성만되지요 어렸슬씨부터 셔로와지 지라는스  
 름이 지금 그모양이 된것을보니셔 조연이전성각이셔 마음이 좃치못호고  
 는속 설어셔 못견디겟셔요」하며 순이는다시 치마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남디와치 지라는다가 그런것을보니셔 네마음을 좃겟니」그모친의 얼골에  
 도 슈일의말을듯고 긍척이녀이는 괴척이가득호드。「그런데 어머니 니말씀좀  
 들으시오 그전이기로 그칭각을 은니호척이 업섯지요만은 작년에 만난이후로  
 는 더욱 심스가 이상호고 근심이되야셔 호로호시도 마음에 패일날이업고져  
 녀이면 그이의살만씨이고 이리호다가는 마음이 수검정와치타셔 죽을것과히  
 요 은버지는 어머니를뵈오면 소상이말씀을호변 호자호자 호면서도 말씀호기  
 가 줄연이어렵고 붓그러워셔 지금까지 인히말씀을 못호엿지요만은 그일로일



상근심을하고 마음을 리우니 사연몸에도 허가 되겠지요 병은 업셔도 얼골은 못되어가요」 모친은 말을드르면서 고리만 쓰덕인다。「그렇기에 나는 어머니께 의론하고 슈일씨를 엿다케든지 하여서 짐으로 다시와서 잇게 하엿스면 좋겠서요 지금까지도 어디잇는지 잇는 곳을 물어서 그리 하엿거니와 지금은 알았스니 아버지께서 가보시고 다시 드러오도록 하섯스면 좋겠서요 잇는 곳을 알면서 도 우리는 모로는 체하고 잇스면 우리가 인정업는 스름이 은이 되오 그러케만 어머니 아버지가 하여 주섯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원이 업겠서요」 순이는 입을으로는 말을 하는 그 목소리는 우름에 섞기 엿다라「그는 너로 말만 하드리도 그러 하겠지만은 슈일의 일로 말하면 집에서 일상하는 말이다 어디서 지금 잇지는 하고 잇는지 헐벗고 굶지는 안이 하는지 네의 아버지가 모여 안쳤스면 항상 하는 말이다 그러치만은 슈일의 하는 짓서 정말 밍살마져 처음에는 나와 혼인하기로 상약 하엿던 일은 파의 하나씩 절문은 허들의 일이라 골에 틀니 여셔 분한 마음은 업지 안 겠지만은 으모리 성이는 다고 제 몸 생각은 도모지 조곰도 안이 혼 단 말이나 어린 것을 다려다가 천지식이 는 다름 업서 그만치 장성하게 길너 노으니라 그런은혜는 조곰도 생각지 안이 하고 슬금면이 집에서 한번씩은 간후는 일절 소식을 듣고 안이 오니 그런 인정 업고 의 리 업고 영독한놈의 짓이 어디 잇단 말이나 그리고 또 나는 우리 딸은 너를 안이 줄터이니라 너는 우리 집에 소용업는

스름이니 너는 네 마음대로 엿다케던지 하라고 우리가 무덤을 말을 하겠도 안 이 오 너의 아버지가 조용이 불너서 집안스세의 말도 다 하시고 학교 졸업 후 에는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너 주마고 하섯더니 그제 제는 좀고마운 말이나 그런데 고모운 생각은 조곰도 업고 도로혀 원망을 하여서 그모양을 하엿고는 그러 가량 잠자는 성도 는 겠지만은 저도 제 생각을 자서 이 압뒤를 헤으려서 보면 그다 지 할 일은 안인디 너 무과이 헛지 제가 우리 집안 일을 으조모르는 것도 안이 요스 리가 번흔 조식이 그런지 각업는 짓을 혼단 말이나 그것도 너의 아버지가 전에 슈 일의 부친께 크게 신세진 일이 잇서서 그 은혜 갑겠다고 으모되도 갈 곳이 업는 어 린 것을 다려다가 기른 것이 안이나 그러니 사저를 그만치 길너서 학교까지 졸업 을 식이게 하여 주었다니 그만하면 저의 부친의 은혜는 너너히 우리는 갑겠다 그 런데 또 무엇을 제가 더 바라며 큰 소리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 슈일의 뜻 을 길너 주어서 그러 하겠지만은 너의 아버지가 듣지 너는 제가 할 일을 가마 니 생각 하면 조곰도 귀여운 마음은 업고 미웁기만 하여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우 리가 면져 초조 다닌단 말이나 너의 아버지가 미오도 그리 하겠다」 하며 그 모친 은 단연히 거절한다。「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것케도 생각하시겠지요 만은 는 암만 하여도 마음은 노을 수가 업서서 지금 와서 감안이 생각 하여 보니 사 슈일 씨도 는 물 할 수가 업고 어머니 아버지도 잘못한 신일이 업고 모도다 니 잘못 할 죄



로 하야서 수일씨는 어머니 오버지를 원망하야 늦코 어머니 오버지는 수일씨  
를 고현놈으로 오시게 하야서 나속담에 미듬은 미진스름이 풀다고 날노하  
야서 그리된일을 너가 스이에 들어서 풀어야 할것이야요 그러니 수일씨의  
잘못을 죄는 너죄로 알으주시고 수일씨는 다시 전과 못처 집에와서 잇게 하야 주  
셔요 만일 너소원티로 그러케만 하야 주시면 너가 속속에 근심이 업셔지고 얼굴  
도 페일티야요 오버지씨도 그러케말씀을 하야 주셔요 응어머니만약 그러케  
히셔 주지 안이하시면 나는 이근심을 이너버셔 보지 못하고 죽을티야요」 이와  
못치 말하는 순의의 가슴은 자기의 지은 허물을 자백하는 것 못처 생각이되야 다  
소간 흉중이 시원한 것 못다. 「그닥지는 네가 말을 하니 집에 올는가 거든 너의  
버지씨 말씀을 하야서 보겟다만은 오모리기로 그사진일에 근심을 하야서 병이  
노도록 될게야 무엇이냐」 「안이하야요 정말 나는 그일로 하야서 점점모양이 이뿔  
이되야가요 밤낮으로 그일만 근심이되고 생각하면 속이 타는 것 못히셔 도모지  
견델수업셔요 요전에 만는 보기전사지는 그러도 지금사지 근심은 되지아니하  
더니 한번만는 이후로는 점사더하고 이가 말는셔 못견티겟셔요 엇더흔셔는 너  
가 무산팔자로 이모양이 되야셔 남의 몸사져 저모양을 만다랏는고 너를 오작이  
는 원망을 하라 하는 생각이면 수일씨는 불상하다 할지 가엿다 할지 는는자  
는 서면 일상 설은 마음박게는 업셔요 너소원은 이외에 다시는 업스니 자식하야

살너 주시는 제음으로 수일씨를 전처럼 다려다가 집에 홈씩 잇게 하야 주셔요 언  
제던지 셔올가면 너가 아버지를 뵈고라도 말씀을 엿들러이지요만은 어머니가  
먼저 잘말씀을 엿주시오 는도 쉬셔올을 을는갈러이지만」 그모천은 아죽도래  
히 허락하는 티답이 업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기를 돌이여 다른 곳을 못그림이  
바라보며. 「암만해도 너싱각 못히셔는 지금드셔 볼너드리는 것은……」 「어머  
니는 그닥지는 수일씨를 미워할 실것이 무엇이요 일간 아버지씨 말씀을 잘하야  
달는고 청하는 어머니씨지 그러케 말씀을 하시니 어디 아버지씨인들 잘말씀을  
하시겟소」 「네가 그러케 말을 하니야 뜻지안이 할리가 업겟지만은……」  
「그러면 고만두시오 안이 들으시면 고만이지요 아버지도 역시 어머니 못처 슈  
일씨를 미워하야셔 그말을 들어주시겟소 그러니야 는도 밋지는 아니히요 은  
들으시면 그만이지요」 하며 순이는 그모천을 야속히 녀이는 모약으로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도 모천은 순이의 그모양을 보고. 「이의글제 좀더 말을 들어라 그  
리말고……」 순이는 몸을 돌니여 벽을 향하코 은지며. 「그만두시오 못드겟티  
셔도 관제치은아요 그만두어오」 「글제이이야 웨이리하느냐 은이든단 말이  
은이든……」 「그리기에 그만두시란는 말이야요 는를 자식으로 알면 그리시겟  
소」 하며 순이는 슈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늑기여가며 체읍하도. 「글제그사  
진일로 이르게 올것이 무엇이냐 이상하스름도 다잇지 네말은 너가 즈셔히알야



들었스니 집에가거든 너의 아버지께 잘엿주어 줄터이니야」 「그만두... 두어오  
 나도 너 생각에 있스니 서 부모에게라도 청할것업고 너 손으로 나가오지요」 「너  
 가흔다니 그대도 무산소리냐 네가 무엇을 엿지흔단말이나」 「...」 「서울  
 을나가면 저서이 엿주어 줄터이다 그대지 올일은 업슬것스다」 그러기에 어머  
 니는 너속마음은 저제이알지도 못흔다는말이지요」 아이그나 나는 아지못하  
 겠다」 하며 그모친은 저이성품이 일어난는지 담뱃디로 저더리만 쌍쌍두다리  
 고 모녀 두스름은 흐춤이나 말이업다.

데스장 嗚呼崎嶇 (오호괴구)

식문반림동 김정연의집에 몸을붓치여잇는 리슈일은 주인이일로 어느곳에 돈  
 을독촉하러갓다가 도라오는길에 남디문밖그로하여 저암동(紫岩洞)근처에 다  
 다랐는디 썩는정이 오후열두점에 갓가왔더라 길사가으로 잇는집에는 흑은남  
 포를달아 간신이 빗초이는 불빛은보이는 곳도잇고 그불도 업는집이 십분이  
 면 철팔이나 되는곳이라 널분길에 인덕은 한아도업고 가가의문도 철철이 닳  
 치엿는디 간간이 지짓는소리만 들니고 적々흔 비인밤이라 슈일은 신체에 괴  
 구함을 스스로한탄하며 고기를숙이여 말아티만 내려다보고 정신업시 지너여  
 간다. 홀연 엿더흔골목안으로서 스름의소리 벽너긋치나며. 「이놈게잇거라」  
 하는소리에 잠씩놀녀 뒤으로 도라보니 한스름은 슈건으로 얼골을덮혀쓰고

웃웃도 아니입엇고 또한스름은 운동모즈를 눈아리까지 놀너쓰고 검은두루막  
 이를 입엇스며 손에는모다 굴근집핑이를 들엇스니 한번보아도 그스름들의  
 용맹함은 능히알겓더라 얼골은 저서이 보이지안이하나 그스름들의 횡동이수  
 상함을 슈일은 잠씩 놀녀엿더라. 두스름은 슈일의 압흐로 갓가이 단녀들며.  
 「나이놈 리슈일이안이나 오늘이야 맛났고나」 하며 몽동이름을 습히들어 슈일  
 를 향하고 쓰러려한다 슈일은 흐손으로 드러오느미를 방배하며. 「나는 아모  
 죄도 업는스름인디 이게웬일이요 만일니가 격원되느일이 잇슬것스호면 우리  
 가 종용이 말로하저 이리할사도 업거니와 또는 나다려 저물을청구하면여  
 피너가 가진돈은 다주어 바릴터이니 이럿케 망녕되이호지마오」 다시 뒤답은  
 업고 머리로 나려지는 몽동이는 슈일의 억지를 향하고 벼락긋치 썩러진다  
 슈일은 눈이강감하고 정신이 앓득하야 몸을썩쳐 다러나려하나 두스름은흐가  
 지로 좃츠와져 두몽동이 가일시에 슈일의등과 억기에썩러진다. 두번저나 중  
 한미를맛고 조곰하면 몸이그즈리에 쓰러질듯하던 슈일은 간신히 몸을슈습하  
 야 급히다라나는발길이 돌스부리에 걸니여 너머지는것을 좃츠와져 스다듬이  
 로 미절을하는대 슈일의몸에 썩러지는미는 여름하날에 빛스줄기긋치 썩러진  
 다. 슈일은 장정두스름의 근력을 엿지당하리오 인하여 그차리에 수일은흐  
 도(昏倒)하여 인스를 차리지못한다. 「어... 이놈 인제야 딱어운경상을 한번보



앗고나 세상에서 빗노이호는놈들은 모도이모양으로 싹금々々호 버릇을 가르  
쳐노아야지」호스름은 싸리던손은 멈추고 이마에 흐르는땀을 수건으로 써스  
면서。 「이놈이 인체는 반죽음이 되었네 남을못살게도 심히호고 단이더니인  
제야 분푸리를 착실이호였네」엇더든지 사무싸려쥬었네 나는팔이압푸도룩싸  
렸는걸」슈일은 실낱만치 숨스결이 붓터잇스나 몸을 이러날괴운은업스며 또  
는 그스름들이 다시 미를들가 겁하여 죽은다시 누엇다가。 「그만가세 그만호  
면 분푸리는호였네」호며 두스름은 총총이 거름하여 골목으로 들어간후에는  
다시 아모괴척이업고 이집저집에서는 귀들의 짓는소리만 들나는디 슈일은간  
신이 고귀를들어 스면을들나보고 몸을일고즈호나 스지가 마목호고 가슴이결  
니여 능히움작일슈업다 그러나 슈일은다시 손을들어 눈물을써스며 신체의괴  
구함을 한탄호썸이라 그이 잇흔잇흔날 아침이되미 각쳐신문지장에 고리디금  
자의조난(高利貨者遭難)이라호는 괴스(記事)가 올낫스나 실노난을만난 리슈  
일을 그릇하여 김정연이라호였고 부상자는 즉시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으  
로 메여다가 방금 치료중이라호였더라 그러나 이와호흔괴스가 호번 신문상  
에오르미 보는스름마다 놀넉기를 마자아니하여 엇던호스름은 오히려 그자리  
에서 죽스호지아니함을 원통이녀이이다 리슈일은 싸린스름은 엇더호 스름인  
지 자셔히 아지못호거니와 필연코 금전상디 초관계로 인하여 혐의를품엇던자

의 소위가안인가하여 신문에도 그와호치 괴지호였고 보는스름들도 모다그리  
호름으로 억척호였더라。 김정연은 이날아침에 리슈일의 입원(入院)하여잇는병  
원으로 슈일의병을 위문호로 와서잇고 그안히 공씨는 호을노 집에잇셔셔 슈  
일의상처가 하로라도속히 평복하기를 축원호다 김정연의 부々두스름은 마음  
을호썸하여 슈일의형애당함을 슬허호며 돈은비록 얼마나들던지 조곰도 앓기  
지아니호고 속히치료하여 전열과호치 완전호스름이 되기를 축원호썸이라。 고  
굉(股肱)호치미으며 천조절호치알던 슈일의형애를 김정연은 조괴의몸이스스  
로 당호것호치 생각하여 가여운마음과 불상이녀이논싱각이 일총더호였더라。  
그안히공씨는 슈일의 당호의외에 지앙을 생각호썸에 이와호흔일이 만일남편  
의몸에 다다르면 엇지호리호야 스스로슬허호며 녀너호야 쥬인의일을 근간  
이보논고로 남에게 원망을스서 남편의몸에 나리는저난을 슈일이가 티신밧엇  
스니 오리지아니하여 그남편에 몸에도 엇지어련일이업슴을 담보호리호 마음  
으로 은근이 호일을 녀너호야 방안에누어있다 문득 밧그로서 신발소리 들나  
는지라 공씨는 그남편이 병원으로붓터 도라음인가호고 안졌더니 비로소문을  
열고 들어오는스름의 모양을보건디 나히는 이십륙철제나 되어보이며 신장은  
크도덕도아니호고 얼굴은 적이 슈척호것호호며 몸에는 양복을입고 코에는오  
동레안경을 걸엇는디 고귀를축이호고 근심잇는스름호치 셔셔이 문을열고 드러



은다. 공씨는 들어서오는 스름의 얼골을 쳐다보다보니 홀연 반가운괴식이 얼골에 가득하여지며. 「아이고 너을나왔니 옛적서 별안간 이르게오느냐」 공씨의 압호로 갖가이나와서 공손이 절흔변을하고 열혜안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엿더호심닛가 오늘아침에 신문을보고 엿지놀나운지 몰랐습니다 디관절과이상하지는 아니호섯슴닛가」 「응 신문에그렇게나서 너의아버지께서는 아무일도알스시다」 그소년은 도로혀 이상히 생각호는 모양으로. 「아니 신문에는 아버지께서 신문받게서 엿더호놈에게 마져서지금 병원에서 치료호시는중이라고 호였든데요」 「그러면 신문에 잘못나서 리슈일이가 그모양을 당호였단다」 「네—그렇슴닛가 그리도 신문에는 아버지의 합짜로 나든일이요」 이소년은 김정연의 달이니 일호은 도식(道植)이라 항상그부친의 호는영업이 조기의마음에는 만족지못호야 날노부친에게 그영업을 폐호기를간호나 종시도 듯지으니호음으로 조기는스스로 분발호여 예수교전도(基督敎傳道)에 종스호노라고 지성군에 내려가잇던터이라 공씨는 허허우스며. 「그것은 신문이 틀넛지 너의 아버지호 악가 슈일이잇는 병원에가섯단다 오리지아니호여 아마 오실나」 「네—나는 아버지께서 그러신줄만 알앗드니 리슈일이가 크게호이니나 슴니다그러」 「글세니말이 그말이나 슈일이가 공연이 황액을만나서 가엽서서 못견디겟다 닷첫서도 여간닷천것이 아니야」 「그런데 엿더케되였슴닛가 신문

에난것은 보니사 여간디단이 상호모양이 아니던걸이요」 「신문에난일은 알수업다만은 병신될지경사저는 되지안코 병원에서 호는말은 석달동안만 잘—치료호면 관게치아니호겟다고 한다드라 이번 슈일의일을 생각호면 너마음에도 엿지가엮스지 아니호겟다 너의아버지께서도 여간걱정을 호시는지 모르지호도가엮서서 병원도 상등으로가서 잇다드라 그러치만은 원악닷치기를 몹시 호여서 원편역기씨가 조곰상호여서 한편손이 괴운이 업서지고 처사에 명이드러서 십퍼릿케 먹장가라 부은것호고 전신은 등등이부어서 참아볼슈가업더라 처음날시벽에 짐으로써매여 들어왔슬써에는 거의다 죽은스름호처 겨우살나호흔 슴만부터 잇구나 나는그씨보고서 잘못호면 다시살지못호줄알고 엿지 녀너를 호였더니 다행이 죽지는아니호겟다고 의원의말이 그러호나 슴름이라 호는것은 목숨이 중한것인가보다라」 「허々 정말참 가엮스일이올시다 아모조 특잘 구원호여주셔야 호겟슴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호셔요」 「무엇을 무엇이라고 호신단말이나」 「슈일이가 이번 황액 당한일을 무엇이라고 호셔요」 「씨린놈들은 빗으로호여서 잔뜩 원을먹고잇다가 그분에못익이여서 버르고잇다가 이번에 그짓을 호였두구나 그리서 너의아버지께서는 엿지가엮시아시는지 모르지 슈일이는 본리축실한 슴름이되여서 남호고 공연이 싸호호리도업는디 감안이 생각호면 우리에게빚진놈이 빚에줄니여서 참



다 못하여서 한을 먹고 그짓 한 모양이니 그 생각을 하면 더구나 슈일이 가가엿  
 서서 무엇이 라고 말하슈가 업드라 「슈일이 는 절문스름이니서 그 지경을 당하  
 었드티도 살으 낫지요 만은(만일) 아버지께서 당하셨드면 살으 나지 못하섯습니까 다  
 으니 그랬습닛가 네 어머니 「이 어머니 스위스러운 소리도 한다 그런 소리는  
 왜 하냐 「그 달 김도식은 한층 동안이나 눈을 감고 김히 무슴싱각을 하고 있더  
 니 서서 이 감았던 눈을 뜨면서 무산 비창한 회포나 있는 것 못치 「여보시오 어머  
 니 아버지께서는 그리도 정신을 쓰리지 못하시 고 이영업을 폐지하실 싱각이  
 업스신 모양이 오닛가 「그 모친공씨는 엇지 대답을 하면 죠출는지 몰나 쥬져  
 하며 「글세다... 별노... 모말도... 나는 못들었다」 당장에 그와 갓흔 보복이  
 으 버지씨도 도라옵니다 어머니는 모로심닛가... 이번에 슈일이 가 당한 일이  
 결단코 남의 일인 줄 노 으 지마시요 「그런 말은 또 너의 으 버지압해서 는 하지 마  
 라」 「나는 말하러 이야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잇드티도 색말을 히야 흥갓셔요 안  
 이 하고는 못견디겟셔요 「글세 말은 흥여보 으 라만은 입디서 지 네가 말을 여려  
 번 하는 것도 보았다 만은 너의 으 버지성미로 으 모리 말을 엇쥬면 드르실리가 잇  
 남의 말은 도모지 듯지 으 하시 는 양반이니서 공연이 쓸티업는 말을 흥지 말고  
 눈감으 두어라 「저도 역시 으 버지씨 그런 말을 흥고 심지는 안습니다 그러치  
 만은 예사의 일이 으니 오 이러하흔 일이 잇는디야 엇지 부모를 위히셔 간하지 안

이 할슈가 잇습닛가 저는 다른 근심은 흥으 도 업셔도 항상 녀녀 되는 일이 이런 일  
 이 으 버지몸에 잇슬가 흥여서 밤이면 잠을 주지 못하고 잇섯습니다 으 우리 집  
 안이 슬순구식을 흥드티도 이영업만 폐지하엿스면 즈흐런만...」 하며 도식  
 (道植)은 눈에 눈물을 먹음고 고기를 숙인다 공씨는 비록 으 들의 말이 라도 정당  
 히 칭망하는 말에 도로 쳐붓그럽고 뒤웃침마음에 무엇이 라 디답하 도리가 업다  
 그러나 공씨는 간신히 그 으 달의 마음을 위로코즈 흥는 말노 「그저 네 말은 모  
 다 당연한 말이 다 만은 너와 너의 으 버지성품은 으 조다르니서 네가 말하는 일은  
 너의 으 버지귀에 들어가 지안코 너의 으 버지 흥시는 일에는 네 마음에 맞지 으니  
 흥니 그스이에 세여잇는 나는 공연이 피로움만 받는고나 인제는 우리 집안도  
 전갓치 어렵지 으니 흥고 조반석죽은 할만하니 인제는 취리도고만두고 편안이  
 사라갓스면 조흐런만 너의 으 버지성품은 그러치 못하니서 그런 말을 흥였다 가는  
 엇더케 여정을 닦실는지 모르니서 좀처럼 말하 여불슈도 업고 네 마음은 그러하  
 줄도 알지 만은 그러타고 어디를 처서 말하슈도 업스니 나는 은근이 근심만 될뿐  
 이오 무엇에 소용이 잇디 너 몸으로 말하 여도 여간고싱안이다 네 마음은 으 모리  
 그러하드티도 지금은 말을 흥여서 쓸티업다 공연이 부즈근에 정의만 상하 지  
 너의 으 버지로 말하 흥여도 너를 엇더케 밋고 바라시나나 다만 흥나트석의 네  
 말을 마음에 먹어 두지 안나 흥실니는 업갓지 만은 너의 으 버지싱각을 또싸로 쥬



편이 있어서 하는 일이니 사 네 말대로 다 드러주실지 모르겠다 더구나 오날은 슈일의일로 하여서 성품이 적용하였는데 네가 무엇이냐고 말을 하면 도로혀 큰 걱정이 날는지도 알수업스니 오날은 아마리 참기 어렵드리도 넘겨두어라」 그모친 공씨는 두스름스이에 세여잇서서 좌우를모다 엇지치못하고 집안에 소란혼일을 이르키지안도록 원하는 마음으로 그아달을 세우친다 그아들은 안경을 벗고 흐르는 눈물을 씨스며 코소리로 하는말이라。「어머니께서 그러케 말씀하시니 사 평일에는 제가 참고지니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날은 참을수가업셔요 오날말씀을 못하면 다시 말씀할 기회가 어디잇습닛가 슈일이 가 이번일을 당한것은 언별이올시다 이러헌 언별이 아버지께도 은이나 릴리는 만우하니 말을 할것 곳흐면 오날말씀을 해야지 다른날이야 무슨소용이 잇습닛가 만일 오날못하면 나는 평성 말씀안이겠습니다」 하고 도식은 우름에 목이매여 한참이나 말을 일우지 못하다가 겨우 우름을 진정하고 말을 계속한다。「제가 부모의 은혜로 이만치 장성하고 이만치 교육을 받았가지고 그 부모를 편안이 받들 능력이 업셔늘 거가 시는 부모로 하여금 이러헌 곤란을 바드시게 할도 모다 제가 불초헌 죄을 시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께서 여간 혼어려운 일을 참기만 하여 주시면 무슨 짓을 할던지 두분이야 굼기시게하겠습닛가 일간 초옥에서라도 우리 세식구가 흠뻘 모여서 남에게 흉도 잡히지 은이 하고 죄도 짓지 안이 하며 원망도 남에게 사지

59

장 한 몽

은이 하고 편이 할 세상을 보낼것을……세상이라 하는 것은 돈이 잇서야만 자미 있게 산다는 것이 은이올시다 그런데 더구나 비리의 돈을 모아서 두면 그돈이 무엇에 소용이 잇겠습닛가 속담에 이른바 악으로 모흔돈은 악으로 업서진다는 말이 업습닛가 억지로 모흔돈이 혼디를 못가서 업서집니다 인과부응(因果報應)은 이세상에 썩々흔리치올시다 그러하니 우리도 향로받비 이영업을 폐지하는니 밤에 상책은 업습니다 아——장리에 좇지 못 할일이 환연이 보이것만은 아——이 일을 엇지 하면 죠흔가」 악에는 악이 도라오고 선에는 선이 도라오는 법이라 김도식은 그부친의 비명으로 횡스흔 죽음이 길가에 노이여 귀에 쫓기고 흠예구러 주인 모르는 시신이 흘립 헌샷 자리에 싸여잇습니 눈압해력력히 보이는 듯하며 자기의 지극헌 정성이 부친의 장리신체를 미리덤치는 듯이 알고잇건만 은 능히 그부친에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으로 소스나 오날회포는 입박게 통곡을 일우는다 모친은 아달의 그모양을 보고 위로할바를 아지 못하여 심히 걱정만 하고 있다 이즈음에 홀연 문스간에서 인력거 소리가 썩근치이며 스름드러오는 괴석이 있다 공씨는 남편이 도라오는가 하여 황망이 일어나 그아달의 억지를 잡고 흔들며 저근목소리로。「이이! 너의 아버지 가 아마지 금 오시나 보다 을지 말고 천연이 잇거라……오날은 제발 너의 아버지께 말하지 마라」 하며 저계문을 열고 마로로 나가려 할저음에 밭서 밧그로서 문이 열나



며 주인 김정연이가 공씨의 억지념어로 낫타는다. 「오! 너왔구나 엇전일이냐」 하며 김정연 그 달이의외로 짐에와서잇슴을보고 말하며 외투를버셔호구석에 처여눓코 온는다 공씨는 버셔노은옷을집어 장속에 집어너으려하다가 그남편을향하야. 「기이느 지금막왔셔요 그런데 슈일이는 좀엇티요」 「나느너무 티단호를줄알앗더니 그닥지느은이하고 목숨에는 관계치은이하며 크게 녀냐 할것은업소」 하며 화로압호로 갖가허온는다 김도식은 비로소 그부친을향하여 절하고 호편에은져있다. 「네얼굴이 왜그러냐 티단이 괴석이 좃치못호것구나」 도식은 호참이나 티답이업고 고기만속이코있다 그모친은 무슴말로 티답호는마 녀녀호기를 마지으니하며 웃간호엽헤 은져잇드 도식은 공손호말로. 「오바지저는 근심되는 일이잇셔셔 얼굴이 그모양이올시드」 응무손겨정 「전에도 일상엿줍던 말슴이올시드만은 돈노리는 인제 그만호심셔요」 「또그리는구나 그만들썩되면 어련이 그만두겟지」 「스세부득이호여셔 그만두게되는썩를 기드리셔는은니됩니다 오날은참에 오바지썩셔 도라마실지경저지 일으러드난 신문을보고 저난엇더케 오바지호시난영업을 그만두도록간치를못호엿던고호고 후회호엿난지 모로겟습니다 드형이 오바지썩셔난은모일이 업스섯스니 오날부터라도 제의견을들어 주옵셔요 지금에 오바지썩셔도슈일이와가호는 별을당호심니다 그것이 겁이나셔 인제난 그만둡셔사호난 말슴

이으니올시드 정당호스업을 시지고닷호드마 목숨이 업셔지난것은 결단코말니지으니 호겟심니다만은 돈으로호여 남에게원망을 사마지고 나종에는저런변을 당호여셔 잘못호면 목숨이업셔지고 요형이목숨은 구호드호여도 병신은면치못호터이니 저는 오바지의몸을 싱크호면 밤에도 잠이오지은습니다 이런영업을 호지아니호면 살아갈수가 업는것도아니요 아바지 어머니두분은 한평싱편안이 지니실지산은 임의 잇지안습닛가 그러호티 무엇이부족호여셔 남에게 원망을들으면서 또남에게 손가락질을 바드면셔도 돈을모으려고 호심닛가가 무엇이 부족호여셔 돈을 구호려고 호심닛가 누구던지 저기가쓰고 남아지는 저기의조손을 위호여셔 후일에남겨주려고 호는것인디 아바지가 멧만큼을 남겨주신다 호드리도 저는호편도 바지아니호터이요 욱심나지도 안습니다그릿케말호고보면 아바지썩셔 오날은 쓸티업는돈을 모으기썩문에 스름의 원망도사고 세상에 비평도드고 당장에 부즈기간에도셔로 뜻이맞지못호고 구수간호호니 아바지괴셔는 반다시 이영업을호야 명예가나는것도 아니요 질거운것도 아니지요 저호호는 조식이라도 만일 귀호줄로 아르실것호호면 지산을만 이물녀 주시는니보다 제마음을 통촉호여줍시오 통촉호여주실뿐이아니라 제의평싱소원을 들어줍셔요 승싱의원이올시다」 부친의압해서 머리를숙이코 용이히 들지못호는디 그얼굴에는 쓰거운눈물이 어리웠다. 조곰도 움직이느빛



이업는 그부친은 도로혀얼골에 미소를 띄우고 말하는 소리까지 예스로이. 「아  
 비의 몸을 생각하여서 그토록 말을 하여 주니 너 마음도 얼마큼 깃거운지 모르겠  
 다만은 너의 하는 말은 한갓피우(杞憂)의 지니지 못하는 말이다. 너는 나와 달나서  
 교를 밋는 스럽이오 학문을 조와하는 스럽이닛사.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  
 다만은 세상이라 하는 것은 네 생각과 처치가는 것이 안이란다. 학문만 조와하는  
 스럽의 마음으로 실업의 종스하는 스럽을 그렇게 희망하여서는 못쓴다.」 스럽  
 이 원망을 하니 세상에서 비평을 하니 하는 것은 우리 실업하는 스럽들끼리  
 로 말하면 그것은 한갓피우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 그중거를 말하면. 할 일 업  
 고 유의 유식하는 구차한 놈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무슨 영업이던지 돈을 남기  
 지고 하는 일에 더하여서는 세상에 공격을 받는 법이 아니라 너도 생각하여 보아  
 라. 그러치 안이 할가 세상에 돈 있는 스럽치고서 남에게 조흔 비평 듣는 스럽이 있  
 는가. 그러치 안이 할나. 너는 교를 밋고 학자로 등천하는 스럽이닛가. 너 마음과  
 는 달나서 돈 갖는 것은 귀홀 줄을 아지 못하니가. 그러하고 학자라 하는 것은 돈을  
 알아서는 못 쓰는 법이야. 그러치 만은 세상이라 하는 것은 모도가 학자만 살고 종  
 교가(宗敎家)만 스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듯겠의 실업가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제일 첫 목덕이 돈이로구나. 세상에 욕심이라 하는 것이 돈외에 또 어디잇디. 그  
 량토록 세상 스럽이 조와하는 돈인디. 무엇이던지 조와하는 목덕이잇서야. 이 세

상을 살아가지 너는 무엇이 데일 조호나. 교인으로는 아즉 아지 못하는 일이다.  
 네 말은 저만 너스히 살아갈 만흔 지산이잇스면 그외에는 다시 구할 것이 업다. 말  
 하니 그것이 진소위 교인의 하는 말이다. 만은 저만 살기에 군석 할 일이 업스면 그  
 외에 더 만족 할 일이 업는 줄도 알고. 그만 두면 이 세상은 멸망(滅亡)하고 사회의  
 스업도 진취 할 기망이 업슬 터이다. 이 세상에 청년들이 모다 나와 조호하면 이 세상  
 은 모도 전간이 되고 고만 둘 터이니. 그러하면 너는 엇지 할 터이나. 세상 스럽의 욕  
 심이라 하는 것이 한이 업는 사득으로 점진보가 되여 가는 법이니라. 나다려 돈  
 은 그렇게 모아서 무엇이냐고. 네가 질문을 하지 만은 너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안이라. 돈이라 하는 것은 모여 글스록 지미가 나는 것이니라.  
 네가 학문이 늘어 가면 늘어 글스록 지미나는 것과 처치는 돈이 늘어 글스록 지  
 미가 잇드라. 지금이라도 너다려 누가 와서 학문도 할 만큼 하였스니. 그외에 다시  
 무엇을 바라는냐고. 그만 하여 두라고 말하면 너는 무엇이냐고. 대답하겠디. 너  
 는 항상 하는 말이 집안에서 하는 영업이 정당치 못하니. 비루하니. 말을 하지 만은  
 돈 모을 영업을 하는 스럽으로 성인 군자의 도를 발바가는 스럽이 어디잇나. 우  
 리가 빛노리 하는게 별나를 빛스게 준다 할다라. 물론 변리는 디 단이 빛산 줄을 모  
 로는 것이 안이야. 그러치 만은 그 디 신에 현당 물이 업스니. 빛스는 스럽은 현당 업  
 시도 돈을 돌려 쓸 수가 잇지 않아 할나. 그러하면 현리가 잇는 사득으로 쓰는 스럽들



은 빗산줄을 알면서도 쓰는것이로구나.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빗사게맞으면  
 서 처음에는 싸다고 속여받는것도 아니오 피처에서로 속을알고 갖다가 쓰는  
 스름들인디 그것이 무엇이 부정당하며 비루한단말이나 별리가빗사서 상당치  
 안이하면 당초에 쓰지아니하는것이조치 그러헌 빗산돈이라도 쓰야만 급훈일  
 을 폐이게되는 스정이 얼마든지있는 이세상이로구나 필요하게아는스름이 있  
 는사슴으로 무던티금을 하는스름도 있는것이 지아모리 빗을주고심은들 쓰는  
 스름이업스면 그영업을 하는스름이 어디있겠냐나 그러헌과미를 보아서 영업  
 하는것이 진소위 장스름은스름의 목덕이로구나 무던티금 영업하는스름을 낮  
 분스름으로 인정할것갓호면 무던티금을 달게녀이고 쓰려하는스름을 너인이  
 세상이 더욱 낮분세상이라 하겠다. 저물이라하는것은 누구던지 사랑하고 구  
 하려하는 물건이오 훈번엇으면 다시 업시키아니하려고 스름마다 이를쓰는것  
 이로우나 그러헌저물을 남보다 더엇을여고 하는색에는 한두가지 수단으로는  
 되지아니 하는법이나라 서로 합의가되여서 여수가되여 돈을남기던지 실피를  
 하던지 하는것을 부정하고 말을하면 이세상에 모든영업이 모두부정훈일이  
 겿지 학자가 교인의 안목으로보면 돈모으려고 하는스름은 모두스름아나라고  
 하지마는 그아달의 흐르는듯한 변론에심히 감동된 그모친은 자로 그남편의  
 괴식을살피보다가 부즈두스름이 극히 고요하게 의론것음을보고 비로소 녀

하던마음을 노앗더라. 김도식은 고의를 좌우호흔들며 「학문가든지 상업가든  
 지스름은다 맛찬가지올시다 스름으로 생겨는 이세상에는 스름의형을길을 직  
 혀야 하지안습닛가 저는결단코 돈모으는것이 그르다는것이 안이올시다 돈은  
 얼마든지 모아도 조치만은 정당이 모지못하고 남의곤는훈 괴미를보고서 빗  
 산변리를 주어서 스름을 괴로이구는것은 결단코 정당훈일이라 할수업습니다  
 그러헌디 그것을 영업의 목덕이라 할수잇습닛가」 김정연은 다만 우음만먹음  
 고 디답이업다 도식은 격양훈 얼골을들어 그부친의 괴식을 살피보며 무릅우  
 에 노여잇는 손고락은 별스떨녀 나온다. 「길게말습나나 간단이 말습나나 리  
 치는벌써 환호외다 다시더 증언부언할것도업고 말습하면 공연이 아버지마음  
 만 좃치 못하실터이나 오날날서지 여러번 말습을엿쥬엇고 또 오날이러케 말  
 습하는것은 모도 아바지신상을 위하여서 할말습니요 이일에디하여서는 제가  
 밤낮으로 엇더케 근심을 남모르케 하였는지 아실슈는 업지오만은 생각을하  
 면 공부하기도실코 어디던지 김흔산중으로 세상을피하여서 들어코스면 좃겿  
 셔요. 아버지씩셔는 이영업이 정당하다 하시지만은 실로 세상에셔는 더욱에  
 옥졸코치 천하고 비루한장사로 아는터인디 아버지씩셔는 세상스름들을 무슨  
 소리를하던지 상관업다고 말습하시지요 만은 소위 지식으로잇셔서 그런소리  
 를 듣고셔야 마음이엇지 조켓습닛가. 아버지씩셔는 상관업다고 말습하시



세상이라도 역시인성들은 지니여같이 세상이올시다 스름마다 혼세상을 살으  
 가면서 웨남에게 천티를받고 손교락질을받고 지니는것이 무엇이 좋습니까 나  
 는 그것이 제일 유감되는 일이올시다. 글지라도 저기가 무산큰지식이있어서  
 이 세상과 충돌을하다가 여의치못하여서 세상과서로 어그러지면 저는 오히려  
 깃거하겠습시다 그썩에는 우리부조가 길사가에 굴머죽드리도 조곰도 원통  
 치안코 도로여 우리부조의 명예요 우리집안에 영광으로 칭감하겠습시다마은  
 지금 우리부조가 세상과서로 어그러진일을 모다 저지열이올시다」 눈에는  
 등한(痛恨)한 눈물이 소스나오며 그부친의 얼굴을 바라본다 김정연은 역시  
 티답은업고 다른곳만 바라보고있다 김도식은 오늘날은세코 그부친을 간하고  
 저할것인지 오히려 말을못치지 안이함며. 「이번일로만보으도 슈일이가 남에  
 게 얼마큼이나 원망을 받았는지 알일이 안이오닛가 아바지의 초인으로 있는  
 스름이 그러할거던 황초 으버지썩서는 얼마나 남에게 원망과 미움을 받으시  
 는지 칭량할슈업지요」 김정연은 손을뉘여 저으면서. 「오냐다! 네말은 알으  
 드렸다」 그러면 니말을 드러쥬실터이오닛가」 글세 알으들었셔 알아들었다  
 는티 웨이리하냐」 알으들으셨다 할것것호면 세말을 치용하여 쥬셔야지  
 오」 네말은 다 알으들었셔 그러치만은 너는너요 나는니지」 부친의 말을듯  
 고 김도식은 홀연분한마음을 금키어렵다. 「으죽너는 점다절머 썩침만보고있

지말고 좀 세상을도라보아라 저식 정리로 부모의몸을 염녀하여 쥬는것은가  
 상흔일이요 괴특흔일이다 네마음도 다 알았고 네말도 다 알으드렸다 그러  
 치만은 나는 니쥬견이 싸로있셔々 밋고하는 일이니사 이렷케 간절이하는네  
 말을 들었다고 니쥬견을 별안간에 곳칠슈가잇는나 이번에 슈일이가 당흔일  
 로하여셔 이후에는 그보다 더욱 큰번을 당할리라고 너는하는말이지」 이후에  
 는 다시 말을홍야도 무익흔일이라고 단렴하였는지 김도식은 다시입도버리지  
 안이한다. 「저식의 말이라도 이비를위히셔 이도록하는말을 듣지못하니 심이  
 미안흔일이다만은 으죽 멧히만 니의몸은 그저니바려 두어라」 하며 김정연은  
 몸을일어스며. 「잠간어디 다녀올썩가잇셔 나는나가니 오늘은 너도집에서 묵  
 어가겠져 니잠간단녀오마」 하며 외투를입고 총각이 박으로 나으간다. 김정연은 얼굴  
 히 공씨는 장속으로부터 모즈를가지고 마로썩셔져 나으간다. 김정연은 얼굴  
 을찌푸리고 그은희의 얼굴을치여다보며. 「여보 니가잇스면 귀치은으니 잠간  
 어디든지 다녀오겟소 엇더케든지 마노라가 잘! 말을일너서 내려보너오」 글  
 세 너에게문 밀고가시니 나는엇더케 잘말을홍오」 엇더케든지 잘문말을홍여  
 보너오 마노라는잇셔도 관계업소 곳 도로나려 갈터이니사」 그러면 령감이  
 기이나라글썩셔져 게시구료」 니가잇스면 기이가 당초에 가지은이호오 어셔  
 들어가셔 타셔일너구료」 하며 김정연은 뒤도도라보지. 나호고 거름을금히호



여 티문으로 좃츠나간다 공씨는 그 남편의 나으마는 뒤스모양도 정신 업시 바라보고 마로썻혀서々 방안으로들어 마차호죽 그달의하는말에 티답호기난 처하다 그러나 홀일업시 호랑이의 썩리를 밤늦도록 마음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 온다 김도식은 두무릅에 팔을 짚고 고기는 느리며 말근 정신은 다나간 스름코치 안저있다. 「이이그러나 사장한테다 점심을먹지」 김도식은 듯지 못하였는 지 티답도업다 공씨는 거듭하여. 「이이 도식으」하는소리에 도식은 비로소고 리를들며. 「어머니」 그 부르는목소리는 마장슬퍼 그모친의 마슴에 맞초이는 것코다 모친은 급히 압호로갓마이나 마안는다. 「그러면 나는 키성으로나 러마겍습니다」 「그것무슨소리냐 점심씩 마 되었난디 요기도안이호고... 오티 간문에 집에라고 올라와서...」 김도식은 길게 한숨지으며. 「밥도 목구녕으 로 넘어 마지 않습니다

데오장 病室 (병실)

머리와어귀에 중상을입은 리슈일은 다행이 퇴막녕 (腦膜炎)에는 이르지만이 호고 그외에 스오쳐에잇는 상처는 날로평복되어 마나 으죽도 좌와과거 (坐臥 起居) 를 임의로 호지못호고 남의손을 비는몸이 되었는고로 호로낫 호로밤을 으모하는일도업시 병실호편 와상우에 누어잇서 고요 병을치료호고잇는 병원의무료호고 적막함은 진저 살으잇는 죽음이 호현에 노여잇는것코다. 병원

에잇는 의스던지 간호부던지 심저어 하인저지라도 모다 눈을들어 슈일과 호 마지로 마장천말호게 관계 마잇슴을 의심하는 최문경의자쇼 문병을 호기위호 야 심방함을 이상히녀이였다. 일이삭이 녀도록 최문경의 으름다운 모양으로 호로도 거르지은이호고 리왕하는소문이 병원전체에 모로는스름이 업는디 처 음얼마동은은 저렷듯 으름다운 녀즈 마 었더호스름인지 으지못하여 지너다 마 병원의스중에도 최문경의니덕을 으저서 으는스름이 잇서々 으저호소문을 들 은후에 여러스름들은 놀니기를 마지으니호며 으는 슈일과 여하호관계 마잇는 지 비로소 알앗더라. 그러함을 슈일은 조곰도 으지못호고 으모관계도업는 최 문경이 마 호번두번이은이오 발스조초를 갓마이하여 으조초조음을 은근히 질 기 지은이하여 수슴츠나 최문경을 향하여 으조초조음이 불마함을 말호였스나 최문경은 고독호신세로 병원에호로잇서 신음하는 심스를 위로호다 칭탁호고 빈삭히 츠오는고로 이몸을위호야 칭각하는마음을 억지로 밝지은이호도 불 마호며 그러나 최문경은 다문병중에 잇는스름을 위로호렷은이라 그외에다른 야심이 썩기여잇슴을 으는고로 으호탈게녀이여 밝을슈도 업는터이라 호물며 슈일은 최문경의 위인이 었더호도알며 으는그몸이 호을노잇는몸이 은이어늘 문일 그릇하여 으괴의몸과 최문경스이에 조치못호소문이 잇슬마녀호야 최 문경이 마 츠와셔 문을열고 들어올제마다 스스로 눈썹이찌푸려지며 압푸고



괴롭지은이 흥던 몸도 공연히 전신에 고통이 생기는 것 같아 병중에도 더욱 마음  
 음을 수구러이 한다. 또 흥가지로 슈일의 마음을 수구롭게 하는 일이 있시니 이난  
 과연 김정연과 최문경이에 피이 혼관계가 잇슴을 의심하였더라. 이날도 항  
 상쓰리는 최문경이가 병원으로 슈일을위하야 슈일의 질기여하는 음식을친이  
 손에 들고 문병을왔는디 임의 혼시간이 넘도록 조금도 도라가려는 괴석이업고  
 슈일의 버키머리에 온젓다섯다하고있다 슈일은 최문경을 등지고 도라누어벽  
 을향하고 누엇으며 잠든것도 온이연문은 눈을감고 고요히누어있다 옆해서  
 종향던 간호부마 밧그로 나으간후 최문경은 교의를 가지고 슈일의 누어잇는  
 와상으로 갖마히온즈며. 「여보시오 여보시오 리슈일씨」 하며 슈일의 버키머  
 리를 손으로 타닥친다 그러나 슈일은 못드르체하고 디답이업는고로 문경이는  
 슈일의 「누어잇는편으로 도라가서 슈일의 잠들어잇는듯흔얼굴을 드러다보며.  
 「슈일씨」 오히려 디답이업스미 문경이는 손을들어 슈일의여기를 감으니 혼든  
 다 슈일은비로소 잠이깨이느도시 눈을번쩍뜨고 치여다본다 그러나 문경이는  
 여기에 언진손을 오히려 썩이지어나하고 그얼굴은 슈일의 버키머리에 디이고  
 「나난당신씩 말씀을저서이 히들일이 잇스니 들어주시오」 슈일은 이제야비로  
 소 최문경이마 그저은저 잇슴으로 은것맞치. 「으 그저 마지은고 잇섯습씩  
 마」 흥번오면 밧치절기게 일상오리 은저잇스니서 으마 괴로우시시오」...

..... 「다른일이 은이라오」 하며 문경이는 슈일의 누어잇는 몸에 마슴을 갖  
 마이다이느고로 슈일은 진짓 몸을돌니여 교의잇는편으로 향하여눕는다. 「이  
 렷케 니압호로 좀향 서 누시구료」 슈일의뜻을 써다른 최문경은 속마음으로  
 매정흔 스름도 잇다하여 히상을집고 혈일업시 일어스며 이와맞치 홀디를 밧  
 으면서도 오히려 그스름을 스모하기를 마지어나하는 저귀의마음을 붓그리나  
 그엿흔 썩나지못하고 서々잇다 그러나 슈일은 디답이업는고로 최문경은흔저  
 말과맞치 슈일의귀에 들니도록. 「으 나난 당신의홀디를 이렷케 밧으면셔도  
 제마음을 제마음되로 못하고 단념을엇지히셔 못하느지」 디체넘어도 당신은  
 너게야박..... 「문경이는 슈일의 버키머리를집고 몸을썩는디 슈일은 모로는체  
 하고 자는모양을짓는다 문경이는 좀드못하야 흥는말로. 「여보시오 그러케나  
 지독하시오 스름이엇지흥면 남의말을듣고 디답하마디 아니하신단말이오」 슈  
 일은 간신이 흥기실인말로 입을열어. 「나난별노히 디답할말이업셔요 디관절  
 당신이나를위히셔 초조오는것이 흥편으로는 고맙고 또흥편으로는 전정.....  
 :. 「엇더케하시는 말씀이오」 「진정 저미업는일이 잇스니 이후는 문병도 그  
 문오시오 당신도 집에불일이 문으신티에 이렷케 여귀문와셔잇스니 데일남이  
 보기에도 이상스럽고..... 「문경이는 슈일이마 저귀를 소원히흥을 처음부터모  
 로는것은은나로티 이제일으러서는 면박하야 등미러 터여또드흥을 당하미 붓



그러음과 분함과 원통한 마음이 일시에 이빨에 올라 발그수름흔얼굴에 눈물을 섞우고. 「니가오면 당신이 괴로워하시는 줄은 처음부터 알고있지요」 「이니오나문 괴로울뿐 이니라 요시오 그외에 드른 걱정이 또생겨스니씩 그것치요」 「시로걱정이 무슨걱정이란 말씀이오」 하며 최만경은 고개를기우리고 한층성각하더니. 「을치 당신쥬인되시는 김정연씨로하여서 말씀이오」 「그렇게 명도박으셔 말하지은도 이말엔」 「그러니씩 니가 할말씀이잇드고 하지은슴니가 당신은 니말이라하면 공연히 저서히 듯지도은이하고 눈쓸부터 썬푸리지문은 당신문 걱정근심이 될뿐 아니라 나도 여간걱정이 은이야요 그러트러도나는 이모관계가 업지요문은 저연이 당신은 니모음은 이시지못하고 공연이심녀를호실가 녀녀가되여서 그말씀을호조고 그러지요」 수일은 듯지못함이안이로티 눈을감고 되답이엿다. 「니마음인즉 발서부터 당신씩 말씀은 호조고노상버르기만하고 인의 괴회가업서사 말씀을 못호엿더니 인제말이났스니 말씀이요만은 김정연씨가 나다려 이러니저러니하고 말씀하던일은 요서부터 시작호일이 안이야요 일상만나면 별망척호소리를 그량반이 다호지요만은 나는그저 점잔케 이피게 저평게하여서 입씩씩지 속여서만 내려왔는디 김정연씨도지금까지 니가당신씩 일잇도록되줄은 아지못호엿지요 그러닛가 당신이 행원에 들어오신후로 나도이렇게 자조쳐오고 김정연씨도 웃음을느시닛씩 저연

이여그서 서로만나는척가 만아서 김정연씨도 아마이상인 생각을 호섯던것이야요 일전에 는 나를만나드니 첫티에호는말이 리슈일하고 무산 관계가잇는나고 호면서 만일수일하고 사티이잇거든 바르디로 말하라고 스름을 못견디게 굴게시리 줄니다못하여서 호수업서 리슈일씨하고 뱀년을 언약호엿노라고 되답호엿지요」 「응우엇이야」 하며 수일은 붕티(崩縶)로감은 머리를 번쩍들고 노기가 가득흔눈으로 최만경의얼굴을 바라본다 만경이는 조그의실연함을 뒤웃치는모양으로 공연히 웃자락만가지고 희롱하며 수일의 노흔눈을피호야 모으려서사잇다 「그러흔거진말을 엿지호야서 흥부로호단말이요 참고약흔 버릇도호는구」 하며 무안에취호야 시름업서 서사잇는 만경의얼굴을 흘기여보며. 「모도 성가시니 어서가오」 수일은 소리질너 썬지으며 분함괴운에 반스즈일어났든몸을 다시조리에 쓰러지는세음에 상쳐가 다닿쳤던지 눈스살을 썬푸리며 괴롭고 압픈얼굴을 짓는다 만경이는 어티를과이 닷치엿는가 놀니여. 「아이고머니 웨그리셔요 어티를닷치섯소」 하며 흘너나린 이불을 치기여덥혀 쥬려하는손을 수일은썬리쳐물니치며. 「글세 그만가요」 하고 수일은다시 만경을등지고 도라누어 고요히 잠든것갓다. 「나는 아니갈리아오 그러케 스름을박티호면 니가좀 더아니갈결 니가잇스면 밤을식올티이오 갈씩되면 갈것을그렇게 스름의 티점을 호는데가...」 이렇듯 만경의호는말이 맞지못호야 문을



열고 밧그로서 들어오는 스름의 괴석에 만경이는 잠작 놀녀 말을 딱 실어엿다. 이제 들어오는 스름은 누구뇨 의스도 아니오 간호부도 아니오 병원에잇는 하인도안이라. 종절모즈에 외투를 몸에 두루고 셔셔히들어오는 늑은신스흐스름이라 방안을 훌끗살피보고 홀연 그신스는 쾌락지못호 괴석이 얼골에 낫타는다. 만경이는 황망히 외상업을 췌여스며 다시 천연흔괴석으로 그신스를 향하야 공손히 고기를숙여 레흐며. 「아이고 령감오섯슴닛가」 「허허날마다이렇게 문병을오는구려」 흐며 안경쓴우으로 눈을흘니여 만경의 얼골을 잠간보고 홀편엽헤잇는 교의를당기여 밀어안는다. 슈일은 그주인 김정연씨가 왓슴을보고 몸을간신히 일어안는다. 「응 오날은 좀엇더흐냐 이런 귀부인이 문병을다와스니셔 마음을 위로흐드리도 병도좀낫겠지 허허」 슈일과 만경은 마음으로는 불쾌히 생각흐엿스나 무엇이랴 티답할바를 아지못하야 주저하는디 김정연은 다만 허허우슬뿐이라. 무엇이랴 티답하며 무엇으로 변명하야 엿지쳐치할는지 심중으로 난처하는슈일은 고기를숙이고 말이업는디 만경은 조금도 겁흐는괴석이업시 화로스가으로 갖가이가셔 불만쫓이고있다. 김정연은 만경의 얼골을 바라보며. 「그러나 티에도 요스이 일이만으실터인디 밧분씨에이러케들을타셔 갓금々々 슈일의문병을 와주시나 고맙기는 호오만은 슈일의병제도 이제는 점점차도가잇고 큰넘녀는 업스니셔 이후에는 밧분들을 타셔 문

병을것도 업슬듯호오」 만경이는 김정연의호는말을 심히미흡히 생각흐얏는지 다시노기가 얼골에낫타나며 말소리는 억지로 나작이흐야. 「안니오 여괴만일부러오는것이 안이라 이근처에 날마다오는일도 잇스니셔 령로에 잠간식들너가는일이시오 그닥지 령감이 녀녀하야 주실일도 안이야오」 김정연은 만경의 얼골을 안경넘어로 다시흔번 치여다본다. 슈일은 이셔를타셔 주인의말을도음는모양으로. 「날마다 문병을 저부인이 와셔주심니다만은 도로혀 피로울셔가 만으니 령감씨셔 잘말슴을 일너보니십시오」 감정연은 슈일의 말을듯고 더욱 다형이녀이여. 「병즈도 너무불안이 아는모양이니 당신의 마음은고맙지아니호것은 안이지만은 이후에는 오기셔져 할것은업소」 「제가 문병을와셔 병에힘들다든지 크게방히되는일이 잇다호실것 갖흐면 이후에는 오지안치요」 흐며 만경이는 성석을향며 김정연을 원수보듯 얼골을홀터보고 고기를돌니인다. 「안이야안이야 결단코 너가그렇게 호는말이안이야」 「참너무 업슈이녀이지마시오 너가 녀편네스름이라고 경홀이보아서 그렇게 말슴을 호섯는지는 모르겟소만은 아모리 녀편네라도 당신씨 그런지휘는 밧지 안이하야도 관게치안이호요」 「그러케알아드르면 엿지호즈는말이오 나는그티의몸을 위히셔호말인디」 「그것은또 엿지호시는 말슴이오 아는량반을 문병을왔기로 너몸에무슨 조처못할것이잇소」 「성각을 그리도 못호겟쇼」 흐며 김정연은 빙긋웃는



다. 「나는 생각나지안아요」 「그는아주 나히었스니사 그러했지 그러했디 단이 미안한말이지만은 너훈마디 말을호릿가 당신도 절문터이오 슈일이도역 시 절문터이니 절문남즈가 있는곳에 절문녀즈가 종사라왕을호면 실상스정은 아지못하고 보는스름드른 이러니져러니 말들을호기가 쉬웁다호는말이오 그 런소문이 날것호하면 슈일이느스나히니사 오히려 관계치안소만은 그디는뜻 갖치절문 녀즈의몸으로 엇지수치가되지 안겟소 나는단지 그러호싱각으로 당 신을 권고호는말이지 허々々」스름의이목이 엽슬씨에는 조그는더욱 심히남의 몸을 더럽히고조호더니 스름의입이라 호는것은임의로 마음에 엽는말도 능 히호는도다호고 만경이는 호을노심중으로 웃기를 마지안이호며. 이런몸이라 도 위호야셔 말씀을 호야주시니 디단이 황감합니다 니몸은 엇더호던지 간에 리슈일씨는 장티에 어진안히를 마샤오실몸인디 나갖흔계잡을 인연호야셔 만 일방히가 될듯호면 나는미리삼가셔 방히가안되도록 호지오」 「허々 너가너무 미안호말을 면박호야 말호엿드니 두말안이호고 얼는들어주니 너모고맙소 그 러나 나갖치호은몸은 죽을병이들어셔 턱을사불드티도 최만경씨 갖흔 량반은 호번이라도 초조호지 안이호겠지」 슈일은 김정연의 은당치 못호말을 진중못 드른체호고 다른곳만 바라보고있다. 「그럴리가잇나요 령감이 병환드시면 문 병안이콜리가 잇슴닛가」 정말 그러호는지 맞쳐모로깃소 그러치만 이렷게즈

조오지는 안이호설」 「령감은 마나님이 계시니사 나호은스름이 너모조조가면 또……」 호며 말뜻을 다마치지못호고 우슴을씨운 아름다운 눈초리와 수건의 로 가리우고 붓그러운 래도를 먹음은듯 모양을 김정연은 한업시엽부게 바라 보다가. 「허허々 그러니사 슈일이는 마노라가업셔셔 마음을늦코 자조초조호 는구료」 「그런것이 안이라오 슈일씨가 봉변호시든날밤이 맛출니집에 오셔셔 는도록게시다가 나고함씨 진고리까지가셔 무슨호정을 좇호고 슈일씨는 남디 문밖그로가시고 나는집으로 도라왔더니 오비이라으로 그날맛춤 그일이 낮슴 니다그려 그날도 수일씨가 일찍이 집으로 나가실것을 니가 공연히 붓잡아셔 늦게호야 노앗스니사 마음에엇지 불안호고 가엽سن지 그러치안키로 호금초조 호지 안이호리는 엽지오만은 더구나 너죄로호야셔 날마다와셔 동정을살피는 것인디 남들은 속도아지못호고 별소리를 다지여너지오 당신만호호도 이상스 러이 말씀을호시지 안슴닛가 그러면 슈일씨나 고맙게아셔야 호터인디 니가 을제마다 너얼골만보면 눈썰을 씨푸리시니사 속담으로 선형저호고 지별입는 다는 모양이올시다」 김정연은 드문드문난 웃슈음을 두손사락으로 부비면서 최 만경의 동작호는래도와 뒷치잇는 말호는 얼골에 청신을얼골에 바라보다가. 「나호은놈은 호은스름이라 남듯기시려 호는말이나 항상호지 듯기호은말을호 기로 절문스름들은 싸로지를안아 그러니사 어초어피에 호은놈은 남듯기실인



말맛에는 할말이 없단말이야 앓가늑가 할말도 단지그티의 몸을위혀서 할말이  
 니 조곰도 엇지아지마오 스름의집안에는 그리도 늑은물건이 잇셔야만 집안이  
 되는법이야」 하며 김정연은 최만경의 괴식을 은근히 살펴본다. 「그릿코말고  
 오다시 또 할실말삼 이온넷가 나히만으신어른이 잇셔야 지각업는 절문아희들  
 을 지도옹야쥬시오 그리치만 절문스름은 암만옹야도 절문스름세리 뜻이맞고  
 조와요」 아모리 그러하기로 늑은스름을 엮헤다가 안쳐눅코 엇지그릿도록 박  
 절옹게 말을할단 말이오 나는비록 늑엇셔도 최만경씨 곽흔 스름은디단이 스  
 랑할건문은...」 「아이고 또시럽슨말삼을 옹시는구료」 하며반은성을늑고 반  
 은뭇그리는 얼골로 와상우에 우뚝거니 안즈잇는 수일을바라보며 은근옹고또  
 는 정다운괴식이 얼골에 그득옹야. 「오날밤에는 안녕이주무시고 늑일은좀더  
 나으시오 늑일또 오을이다」 하며 김정연을 향옹야는 지늑그는인스로. 「나는  
 먼져감니다 안녕이 단녀갑시오」 옹고 문을열고 나아그려 옹는지라 김정연은  
 교의에서 급히몸을 일며. 「여보 별셔 그러오 나도갈터이니 그치동행 합시다  
 그러」 「나는 이근처에 잠간단여 갈데 그잇셔오」 「그러하면 거기서지문 동행  
 을옹지」 「오날은 급할일이잇셔서 그리하시느면져 그잇습니다」 김정연은  
 급급히 버셔노앗던 외투를 팔에짊이며 할손으로난 모즈를 집어쓰며. 「입디서  
 지안즈잇다 그 별안간에 급할단말이오 나도그티를 할번문나면 의론옹자 옹면

셔 인이문나지를 못옹앗더니 요전세음조건에 조곰들난곳이 잇셔서」 「그러면  
 늑일 찬찬이옹지오」 「앗다 그릿케 스름도 옹옹할단말이오 늑일할일 잇고 오  
 늘을일도잇지 우리의 취리상에야 늑은나 절문니를 구별할것이잇소 허허허」 옹  
 며 셔로전후옹야 맞그로 나아간후 슈일은 악몽(惡夢)을 비로소 셔인듯셔시  
 일흔 마음이나며 다시벼기를버히고 반듯이누어 할숨문 짓고잇다.

데류장 垂淚不見 (슈루불견)

슈일이 그 병원에들어온지 임의수삭이 넘엇난지라 심흔츄의난 지늑여 그 일  
 틱양과 그 도라오난 초췌던과 그 되엿더라. 쓸압헤 늘어진 수양(垂楊)은 푸른  
 괴운이 선연히낫타나고 철쭉 신이화난 싹방울이 불고자랑난디 여러달사동안  
 치료받든 수일은 상처난 평복이 되여 그나 몸은자연히 수척옹야 근력을 수습  
 할기어려운터이라 호을로 병실에누어 창밖그로 멀리봄을늘을 바라보고 잇다  
 그 눈이부시인지 다시엮헤노엿던 책을집어서 할참보니 괴운업셔 책을얼골에  
 그리워지고 슈일은 화연히 쓸결긋치 무산성각이 왕리흔다 셔인것도 안이오  
 쓸도안이오 다문은무에 싸인몸과긋치 옹히려 버셔나지 못할씨에 베키머리에  
 셔 스름의 부르는소리에 삼썩늘녀고 고기를 번쩍들고 치여다보니 와상엮헤  
 셔셔잇난스름은 꽃최모경이라. 이늑은 더욱 단장을 곱게옹고 눈스결그흔손  
 목에 광치 그영롱한 그금고리센손으로 슈일의 억지를잡고 옹늘며반은 우음을먹